

문 의	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	팀 장 황은택 주무관 이은애	042-481-5674 042-481-5659
 	2019년 7월 22일(월) 배포(09:00)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, 국제특허출원 활발

- 최근 5년간(2014~2018)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 동향 분석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PCT 국제특허출원¹⁾은 2014년 13,138건에서 연평균 6.6%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8년 16,99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. [붙임 1 참조]
- 이러한 국제특허출원의 급성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대기업, 중소기업, 대학 등이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.
-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, 먼저 대기업은 출원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.6% 급증하면서 전체의 40.3%를 차지하여 대기업이 국제특허출원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 참조] 같은 기간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4년 45,986건에서 2018년 35,240건으로 연평균 6.4%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특허출원 1,047,583건 중 194,463건으로 전체의 18.5%로 나타나, 대기업의 특허전략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.

1) 특허협력조약(PCT)에 의한 특허출원으로 하나의 출원서 제출로 전 세계 가입국('19.7. 현재 152개국)에 동시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갖는다.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에 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, 출원인은 특허청이 제공한 국제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받아보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안에 외국 현지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중소기업, 개인은 전체 24.0%, 13.4%의 점유율로 나타났고, 이들의 출원은 연평균 6.0%, 1.2% 증가하였다.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생했던 해외 특허분쟁이 최근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개인도 해외 진출시 특허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.
- 대학은 최근 5년간 전체의 8.4%만을 차지하였으나, 출원건수가 연평균 9.3% 증가하여 대학들도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최근 5년간 다출원인을 보면,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(9,232건), 엘지전자(8,527건), 엘지화학(4,581건) 순이며, 이들 기업이 전체의 29.4%로 국제특허출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특히 엘지화학의 경우, 출원 건수가 대기업 연평균 증가율(8.6%)보다 훨씬 높은 14.3%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. [붙임 3 참조]
- 한편, 중소기업으로는 아모그린텍(262건), 대학으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(570건)이 가장 많이 출원했다. [붙임 4 참조]
- 주요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디지털통신(건수: 8,650건, 점유율: 11.4%), 전기기계(6,407건, 8.4%), 컴퓨터기술(5,098건, 6.7%), 의료기술(4,176건, 5.5%) 순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였다. [붙임 5 참조]
-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“최근 해외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도 국제특허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”면서, “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 심사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이은애 주무관(☎ 042-481-565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연도(2014~2018)별 국제특허출원 건수

출원년도					증감	
2014	2015	2016	2017	2018	연평균	5년 대비
13,138	14,594	15,595	15,790	16,991	6.6%	29.3%

[붙임 2] 출원인 유형별 국제특허출원 점유율 및 증가율

순위	국제특허출원 (5년 누계 : 76,108건)		
	출원인유형	'14~'18 누계	점유율
1	대기업	30,649	40.3%
2	중소기업	18,241	24.0%
3	내국개인	10,204	13.4%
4	대학	6,413	8.4%
5	중견기업	5,752	7.6%
6	연구기관	2,910	3.8%
7	비영리법인	538	0.7%
8	외국법인	423	0.6%
9	공공기관	325	0.4%
10	공기업	314	0.4%

구분	국제특허출원					증감(%)	
	2014	2015	2016	2017	2018	연평균	5년 대비
대기업	5,252	5,644	6,173	6,267	7,313	8.6%	39.2%
중소기업	3,075	3,433	3,851	4,000	3,882	6.0%	26.2%
내국개인	1,906	2,158	2,122	2,015	2,003	1.2%	5.1%
대학	1,035	1,224	1,295	1,383	1,476	9.3%	42.6%
중견기업	1,064	1,200	1,192	1,106	1,190	2.8%	11.8%
전체	13,138	14,594	15,595	15,790	16,991	6.6%	29.3%

[붙임 3] 상위 10개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점유율 및 3개 기업의 증가율

순위	국제특허출원 (5년 누계 : 76,108건)		
	출원인명	'14~'18누계	점유율
1	삼성전자	9,232	12.1%
2	엘지전자	8,527	11.2%
3	엘지화학	4,581	6.0%
4	엘지이노텍	1,105	1.5%
5	포스코	890	1.2%
6	삼성에스디아이	747	1.0%
7	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	570	0.7%
8	(주)아모레퍼시픽	545	0.7%
9	한국과학기술원	452	0.6%
10	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	449	0.6%

구분	출원년도					증감(%)	
	2014	2015	2016	2017	2018	연평균	5년 대비
삼성전자	1,649	1,696	1,858	1,808	2,221	7.7%	34.7%
엘지전자	1,396	1,819	1,964	1,589	1,759	5.9%	26.0%
엘지화학	827	607	792	942	1,413	14.3%	70.9%

[붙임 4] 상위 5위의 중소기업, 대학 국제특허출원 건수

순위	중소기업		대학	
	출원인명	'14~'18누계	출원인명	'14~'18누계
1	아모그린텍	262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	570
2	룸엔드하스 전자재료코리아	140	한국과학기술원	452
3	덕산네오룩스	118	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	449

[붙임 5] 상위 10개의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 기술분야별 국제특허출원 점유율

순위	국제특허출원 (5년 누계 : 76,108건)		
	기술분야	'14~'18누계	점유율
1	디지털통신	8,650	11.4%
2	전기기계/에너지	6,407	8.4%
3	컴퓨터기술	5,098	6.7%
4	의료기술	4,176	5.5%
5	오디오/영상기술	3,393	4.5%
6	원거리통신	3,265	4.3%
7	전자상거래	2,770	3.6%
8	기타소비재물품	2,549	3.3%
9	반도체	2,343	3.1%
10	유기정밀화학	2,278	3.0%